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국 상해 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 Share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주식에의 투자는 A Share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성장성을 지닌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모투자신탁의 기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활용하여 원/달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67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101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2,10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3년 12월 17일)

- 클래스 A : 2016년 05월 10일
- 클래스 C : 2016년 05월 10일
- 클래스 C-E : 2016년 09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3년 12월 1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17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6년 05월 10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9년 07월 19일
- 클래스 C-W : 2019년 03월 13일

벤치마크

CSI300 Index(CNY)(T-1) 28%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2% + KAP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85.5%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5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6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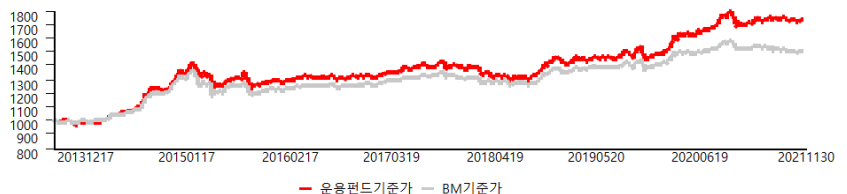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48%	0.06%	0.19%	4.56%	20.39%	33.25%	31.60%	74.13%
클래스 A	1.40%	-0.19%	-0.31%	3.52%	18.01%	29.39%	25.35%	29.70%
클래스 C	1.47%	0.06%	0.18%	4.56%	20.10%	31.24%	26.11%	30.20%
클래스 C-E	1.40%	-0.18%	-0.29%	3.57%	18.44%	30.80%	21.99%	23.00%
클래스 C-P(퇴직연금)	1.37%	-0.25%	-0.44%	3.25%	17.40%	28.34%	23.60%	57.59%
클래스 C-P(퇴직연금)E	1.40%	-0.16%	-0.26%	3.63%	18.27%	29.76%	-	23.87%
클래스 C-P2(연금저축)	1.37%	-0.28%	-0.50%	3.14%	17.15%	27.92%	23.02%	27.05%
클래스 C-P2(연금저축)E	1.40%	-0.17%	-0.28%	3.58%	18.16%	-	-	18.23%
클래스 C-W	1.44%	-0.06%	-0.06%	4.03%	19.18%	-	-	22.24%
벤치마크	0.78%	-0.31%	-2.51%	-0.81%	8.83%	18.13%	19.18%	50.2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자금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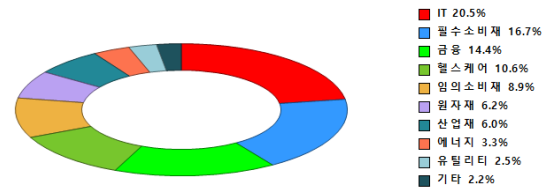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11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11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국가	섹터	비중(%)
KWEICHOW MOUTAI COMPANY LIMITED	중국	필수소비재	5.7
CHINA MERCHANTS BANK CO(NEW)	중국	금융	4.1
TIANJIN ZHONGHUAN SEMICOND-A	중국	IT	3.4
WULIANGYE YIBIN CO LTD	중국	필수소비재	3.3
CONTEMPORARY AMPEREX TECHN-A	중국	에너지	3.3
MIDEA GROUP CO LTD-A	중국	임의소비재	3.0
GF SECURITIES CO LTD-A	중국	금융	2.8
WUXI APPTCC CO LTD-A	중국	헬스케어	2.6
BYD CO LTD -A	중국	임의소비재	2.3
EAST MONEY INFORMATION CO-A	중국	IT	2.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01% (판매 0.5%)
- 클래스 C : 총 연 1.41% (판매 0.9%)
- 클래스 C-E : 총 연 0.96% (판매 0.45%)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6% (판매 0.75%)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9% (판매 0.38%)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37% (판매 0.86%)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 클래스 C-W : 총 연 0.51% (판매 0%)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5%,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1월 중국증시는 펀드의 벤치마크지수인 CSI300 Index(CNY)기준으로 전월 대비 0.87% 하락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방위산업, 통신서비스, 비철금속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레저서비스, 광업, 은행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11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50.1로 중국 내 전력 공급이 다시 안정을 찾으며 8개월 하락세 마감은 물론 3개월 만에 경기위축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1~10월 중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였고 인프라 투자도 부진하였습니다. 10월 소비재 소매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여행 관련 소비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2년 평균 성장률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업종의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펀드에서는 종목선택과 자산배분 모두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펀드투자 성과를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 소재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펀드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소비재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월초 채권시장은 10월말 외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세와 대외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따른 주요 선진국 긴축 우려에 급등세를 나타낸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며 강세로 출발하였습니다. 기재부의 시장 안정화를 위한 2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시행 및 RBA, BOE,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등 주요국 긴축 속도 조절은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 \$150억 규모의 테이퍼링이 발표되었지만, 이미 기정 사실화 되어있던 점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일관된 시각에 금리 상방압력은 제한되었습니다. 외인의 국채선물 매수세 전환 및 추가 세수 전망에 따른 국제상환 기대감에 금리 안정화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CPI 급등을 시작으로 경기개선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기되며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월 의장 연임 결정에 향후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기대감에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25bp 인상되었지만, 선반영 인식으로 오히려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월말엔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금리 하락 폭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국고3년 금리는 전월대비 32bp 하락한 1.787%, 10년 금리는 35.9bp 하락한 2.204%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3Q GDP 잠정치는 전분기비 +2.1%를 기록하며 예상치 및 3Q 속보치(2.0%) 대비 상승하였고, 미국 10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4.6%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61.6(전월 60.8),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7%(전월 0.8%)로 모두 예상치 및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미국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하며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지수(YoY)는 +4.9%(전월 4.1%)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11월 Caixin 제조업 PMI는 49.9(전월 50.6)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국내경기의 경우,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1.9% 감소하였으나, 11월 수출(YoY)은 32.1% 증가(수출 604.4억 달러, 수입 573.6억 달러)하였고, 무역수지는 30.9억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완화시킬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 대신경제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신에너지, 신소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A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기 상승 추세는 변함없고 여전히 구조적인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1월 말 기준 중국 A주의 밸류에이션은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고, 고평가에 따른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헬스케어, 소비재, 기술재를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펀드에서는 양질의 선도 기업 발굴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산업에 대하여 방향성 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합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1.0%로 25bp 금리 인상 결정 및 1명의 금리동결 소수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융불균형 완화 추세에도 물가 흐름에 비추어 2022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및 자산매입 규모 축소 결정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 결정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연속성 확보로, 금리인상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매파적인 ECB 위원들이 PEPP 3월 종료로 주창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재도입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1월 BoE에서는 물가상승 전망을 유지하며 기준금리 동결(0.1%) 및 자산매입 규모 유지를 발표하였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 집값 상승세 및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인상(0.75%) 결정을 내렸습니다. RBA는 YCC 철회와 더불어 기준금리 동결 및 40억 호주달러 정부채 매입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은 5.8조로 각 만기 별 발행량 (2년 2년 -0.1조, 3년 -0.2조, 5년 -0.35조, 10년 -0.5조, 물가 보합, 20년 -0.1조, 30년 -0.9조, 50년 -0.05조) 및 총 발행량은 전월대비 2.2조 감소하였습니다. 미국 물가지수 서프라이즈 등 소비 중심의 견조한 회복세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유임 결정과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 및 인플레이션 대응 시사 등은 글로벌 조기 정책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호한 수출기반에 국내도 고물가 부담으로 채권시장 부담은 상존하지만, 재 확산 심화된 코로나에 더해진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은 그 치명률 등 위험성에 대한 정보 확인 전까지 긴축속도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며 향후 추가 정상화 의지를 시사했으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과 초과 세수의 12월 발행 물량 축소 활용으로 확인된 당국의 시장 안정 대응 의지에 의해 이미 금리 인상 상당부분을 선반영한 금리 레벨 상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달 국고채 3년은 1.65~1.95%, 국고채 10년은 2.05~2.25%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국고 10-3년 스프레드 기준 30bp~50bp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